

창업기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이정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대중문화시나리오과정 박사 수료)*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창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 (IPS)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존감은 창업가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우울감은 창업가의 창의성 및 동기부여를 저하시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감과 우울감 간의 상호작용은 창업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은 창업가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창업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주제어: 창업성과, 자존감, 우울감, 심리적 요인, 통합적 심리지원, 창업지원, 심리적 회복력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창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업 과정은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한 의사결정을 동반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창업기업가는 다양한 도전과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창업기업가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창업기업가는 지속적인 경쟁, 자금 부족, 인적 자원 관리, 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가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업이 결정된다(Aspelund et al., 2005). 또한, 창업가의 역량에 의해 경쟁력에 대해 큰 영향을 받는다(Herron & Robinson, 1993).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상태는 창업의 지속성과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최근 연구들은 창업기업가의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특성이 창업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청년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은 주로 자기 효능감, 동기부여,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난 창업가는 업무 부담이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박덕근 외, 2021). 자존감과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정신 건강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높은 자존감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반면, 우울감은 감정적 고통과 무기력을 동반하여 창업기업가의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를 저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창업의 각 단계에서 창업기업가의 행동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창업 과정에서의 도전과 난관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며,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원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업 능력을 극대화하며, 이는 창업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자존감은 창업기업가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창업 과정의 불확실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대로,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저하하여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울 상태에 있는 여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줄어들 수 있다(임은정, 2019). 우울감을 겪는 창업기업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실패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주저자, 한양대학교 대학원 대중문화시나리오과정 박사 수료, ijcongwon@naver.com

· 투고일: 2024-09-08

· 1차 수정일: 2024-10-07

· 2차 수정일: 2024-10-15

· 게재확정일: 2024-10-22

다. 이는 창업기업가의 혁신적 사고를 저해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여 창업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리더십 발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팀 내 갈등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창업기업가가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차별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자존감과 우울감이 각각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우울감을 견디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덜 받으며, 이는 결국 창업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창업기업가는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창업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인 심리적 영향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자존감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창업기업가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에게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통해, 창업가의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며, 이는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자존감과 창업 성과

자존감(self-esteem)은 상황과 관계없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확고하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동기부여, 행동 패턴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Rosenberg, 1965). 매슬로의 욕구단계설(hierarchy of human needs)에서 자존감을 포함하고 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존중감(esteem)을 묘사하였다. 인정(recognition), 성공, 칭찬이라는 형태로 타인들로부터 얻는 존중(respect)을 바라는 욕구, 그리고 자기에(self-love), 자신감(self-confidence), 기술(skill), 소질(aptitude)이라는 형태의 자기 존중(self-respect)에 대한 욕구가 그것이다(Maslow, 1987).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현실에 잘 적

응하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상생활 적응도가 높고 사업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김의정·표시연, 2024). 자존감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동기부여와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한다. 특히 자존감이 높은 개인은 실패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환경에서 자존감은 창업기업가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창업은 높은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창업기업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필수적이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지속해서 창업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은 창업적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 창업 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수·이종완, 2018).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외부의 비판이나 부정적 피드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결단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창업 과정에서의 리더십 발휘와 혁신적 문제 해결 태도를 강화하며,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은 자존감은 창업기업가의 리더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팀원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팀 내 갈등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이끌어간다(Cacciotti & Hayton, 2015). 이러한 리더십은 창업기업가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사기를 증진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기업가정신은 감성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김종관·박기홍, 2018), 감정적 지능이 높은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수 많은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어진 창업 환경에 대한 복원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직·박재춘, 2015).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가적 자아존중감이 높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Krueger et. al., 2000).

또한,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존감은 창업기업가의 개인적 성공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심리적 자원이다.

따라서 창업기업가의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은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창업 과정에서 자존감을 증진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가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유지하고 도전하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중요하다. 자존감은 창업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이를 강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설 1: 창업기업가의 자존감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우울감과 창업 성과

우울감(depression)은 슬픔, 무기력, 흥미 감소 등의 감정적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생활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상태이다(Radloff, 1977). 우울감은 지각, 사고, 인지,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까지 일상생활에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ck, 1979).

관계 지향적 유형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며 자신의 안정감과 만족을 위해 관계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실연이나 죽음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에 의해 우울감이 유발될 수 있다. 반면 성취 지향적 유형은 자신의 독립과 성취를 중시하며 자신의 목표와 성취를 통해 자기-가치감을 느낀다(권석만, 2000).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저하를 넘어 집중력 저하, 의사결정의 어려움, 심리적·신체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해 직업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우울감의 유형을 개인적 우울감과 사회적 우울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적 우울감은 개인의 내적 요인에서 비롯된 우울감으로, 자존감의 저하, 자기 효능감의 부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은 창업기업가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결정적인 의사결정 시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 경우, 창업기업가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우울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특히 사회적 지지와 연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지원이 결여된 창업환경에서는 창업기업가가 외부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 깊은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회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팀 내 소통 부족, 갈등 증가 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자본의 부족은 창업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을 저하할 수 있다(임은정 외, 2020). 사회적 우울감이 창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창업 가능성과 기업가정신 발취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손상규, 2020). 또한, 기업들은 지적역량뿐 아니라, 이를 발휘하는데

감성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hippmann, et al., 2000).

창업 과정은 일반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창업기업가는 끊임없는 경쟁, 재정적 부담, 업무의 불확실성, 실패의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창업기업가에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 과정에서의 중요한 심리적 도전으로 작용한다.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창업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ariv, 2013). 은행권청년창업재단(2022)의 2022년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창업 이후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중 64.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우울감을 겪는 창업기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문제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창업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과도한 회피 행동을 유발하며, 이는 신중함을 넘어 혁신적인 결정이나 새로운 시장 진입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우울감을 경험하는 창업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장 기회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확대되면서 창의성과 혁신성이 저하될 수 있다(Eaton et al., 2004). 이는 결국 창업 성과를 저해하고 조직의 성장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영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면 뛰어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과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믿음과 함께 개인의 내적 특성,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감정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정영호, 2013).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리더십 발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울감을 겪는 창업기업가는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팀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조직 내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며, 이는 협력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동기부여에도 큰 영향을 미쳐 창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하고, 중도 포기의 위험을 높여 창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우울감은 창업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창업기업가의 정신 건강 관리는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우울감을 적절히 관리하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은 창업기업가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울감 관리 전략으로는 심리 상담, 스트레스 관리 기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등이 있으며, 이는 창업기업가가 직면하는 심리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업기업가가 우울감을 관리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창의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고, 팀과 원활한 소통

과 협력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우울감에 대한 이해는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상태와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들은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창업기업가의 정신 건강 관리가 창업 성공에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업기업가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심리적 자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우울감은 창업 성과를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창업기업가의 우울감 관리와 정신적 회복력 강화는 창업 과정에서의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가설 2 : 창업기업가의 우울감은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요인의 통합적 영향

자존감과 우울감은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심리 요인이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창업기업가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osenberg, 1965). 반면, 우울감은 슬픔, 무기력, 흥미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창의적 사고,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해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adloff, 1977).

자존감과 우울감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창업 성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우울감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실패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 효능감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창업기업가는 우울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과도한 회피 행동을 보일 수 있다(Kariv, 2013). 특히 자존감이 높을 경우, 창업가가 우울감을 경험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크게 완화된다. 이는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실패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우울감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의사결정 장애를 극복하게 도와준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어 창업 성과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창업가는 우울감을 경험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위험 회피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혁신적인 사고가 억제되며, 이에 따라 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존감과 우울감은 개별적으로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통합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자존감은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며, 창업기업가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창업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을 때 우울감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어 창업 성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두 요인의 상호작용은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상태와 창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은 창업기업가는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라도 그 상황을 더 잘 견디어 내고 더 열심히 학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nk & Zimmerman, 1997). 반면,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을 느끼는 창업기업가는 실패를 개인적 무능력으로 해석하여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 성과의 현저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존감과 우울감이 각각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Cacciotti & Hayton(2015)은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Kariv(2013)는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정서 조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적응적 정서 조절 간의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이민선·채규만,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자존감과 우울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조해선·류경민(2023)의 연구에서도 경영자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 요소 중 희망이 높을수록 창업 기회를 인식한 후 창업을 실제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현철·김종성, 2021). 창업은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특성과 함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윤방섭, 2004).

가설 3: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2.4. 통합적 심리지원의 영향

통합적 심리지원은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다양한 심리적 도전에 직면하며, 이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Stephan(2018)은 창업가가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확실성, 위험을

견디기 위한 심리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업가의 높은 자기 효능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창업 성과를 향상할 수 있으며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창업가는 더 나은 창업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존감은 개인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창업가의 자존감은 창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Ulrich & Ulrich(2011)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창업가는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맞서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존감이 창업가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임을 시사한다. Tisu et al.(2023)의 연구는 창업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실패가 창업가에게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울감은 창업가의 의사결정 능력과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울감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이 창업가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Chen & Tao(2021)은 창업가의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력이 높은 창업가는 실패와 역경에 맞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창업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회복력은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심리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Stephan(2018)의 연구는 자존감, 우울감, 심리적 회복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가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자존감과 우울감의 통합적 영향을 고려할 때,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통합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수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김주환, 2011). 심리적 지원은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 상담, 자아존중감 강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업기업가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창업 성과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창업자 개인에 대한 특성과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환경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라는 변수를 이해하여 동시에 연구한다면 창업 의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이다(장유진·이병희, 2019). 창업가 역량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역량 중에서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이 창업지원 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안태욱·강태원, 2020).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스스로가 행동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행동을 조절하여 변화를 주도한다(윤상문·백성익, 2017).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개별적

및 통합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창업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두 요인의 통합적 효과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별성은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창업 과정에서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창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 4: 창업기업가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통합적 심리지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창업하고 현재까지 기업을 운영 중인 창업기업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기업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표본은 창업 년수, 기업 규모, 창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기업가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며,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해 온 창업기업가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상태와 그로 인한 창업 성과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창업 년수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미만으로 설정하여 창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경험한 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은 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기업가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고,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기술(IT), 유통업,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하도록 하여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산업 환경에서의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은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기업가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치유기반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심리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2024년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40부씩 질문의 순서를 다르게 구성하여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부실한 응답 20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0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존감, 우울감, 창업 성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존감은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기반으로 응답자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우울감은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참고하여 측정하였으며,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응답자는 정서적 상태와 우울 증상의 정도와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창업 성과는 기업의 매출 증가율, 시장 점유율 증가, 고용 창출, 신제품 개발 등의 객관적 성과 지표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업의 성취도와 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와 조사는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요인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그리고 창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기존 연구에서 널리 활용된 척도들로, 본 연구의 심리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독립변수로 자존감과 우울감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첫째, 자존감은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재(1974)가 처음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현재까지 여러 나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 타당한 척도로 사용 가능하며(Schmitt & Allik, 2005), RSES는 개인의 자존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RSES는 다양한 심리학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alpha > 0.80$)와 타당도를 인정받아, 개인의 긍정적 자기 평가와 자신감 수준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우울감 측정에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을 활용하였다. CES-D는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 증상 평가 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Radloff, 1977;

Weissman et al., 1977). 18세 이상의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 집단과 인종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전경구·이민규, 1992). 우울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3점: "거의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CES-D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우울감 평가에 널리 사용되며, 높은 신뢰도($\alpha > 0.85$)와 우울 증상에 대한 민감도로 인해 임상 및 비임상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척도이다.

종속변수로는 창업 성과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을 구성하였다.

창업 성과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객관적 성과 지표로는 기존 연구에서 창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매출 증가율, 시장 점유율 증가, 고용 창출,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였으며(Chandler & Hanks, 1994; 이해영·김진수, 2018; 신용식 외, 2021), 본 연구에서도 최근 1년간의 성과를 응답자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성과 평가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사업 성취도와 만족도 평가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불만족"~5점: "매우 만족")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창업가의 개인적 성취감과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어 심리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매개변수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문을 구성하였다.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창업자들이 겪는 우울감과 고립감에 대한 연구(Muenster & Hokemeyer, 2019), 창업자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분석(Turner & Brown, 2010; Harandi & Nayeri, 2017), MIT의 창업자들이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원을 제공하는 Entrepreneurial Confidence and Communication Program (ECC)을 참조하여 자존감 향상 및 우울감 감소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으로 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IPS는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향상하고 창업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응답자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그 효과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통합적 심리지원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창업가들의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창업경험, 창업자원, 연령, 교육수준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창업환경이 영향을 미치며(장수덕, 2005; 전혜진, 2014; 김혜화·변상해, 2018), 창업지원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원 중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창업가를 대상의 창업지원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 시사점이 도출되었다(김창봉·이승현, 2017). 성별, 연령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다(이예슬 외, 2020; 박경희, 2020). 또한 창업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홍효석·설병문, 2013).

본 연구는 자존감, 우울감,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창업 성과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창업기업가의 자존감(Self-Esteem, SE)과 우울감(Depression, DP)이 창업 성과(Entrepreneurial Performance, EP)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SEM은 여러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방법으로, 자존감, 우울감, 창업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경로 분석은 SEM의 일종으로 각 변수 간의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를 평가하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SE)이 창업 성과(EP)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우울감을 매개로 창업 성과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더불어, 자존감과 우울감 간의 상호작용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기초통계량

<표 1>의 분석 결과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초통계 결과이다. 조사 대상 창업기업가 중 남성이 60%로 더 많았으며, 여성이 40%를 차지하여 남성 창업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창업기업가의 나이 분포에서는 30~39세가 4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40~49세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중년층 창업가가 주요 그룹임을 보여준다. 학력 분포에서는 대학교 졸업자가 60%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 이상이 30%를 차지하여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창업기업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창업 년수에서는 4~6년 차 창업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7년 이상의 창업가도 상당수 존재해 중장기 창업 경험을 가진 기업가들이 많음을 나타낸다. 직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절반을 차지하여 많은 창업기업가가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 분포에서는 서비스업과 IT/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기업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창업기업가들이 주로 서비스업과 기술 중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기초통계량

변수	범주	인원(명)	비율 (%)
성별	남성	180	60.0
	여성	120	40.0
나이	20-29세	50	16.7
	30-39세	120	40.0
	40-49세	90	30.0
	50세 이상	40	13.3
학력	고등학교 졸업	30	10.0
	대학교 졸업	180	60.0
	대학원 졸업 이상	90	30.0
창업 년수	1-3년	90	30.0
	4-6년	120	40.0
	7년 이상	90	30.0
기업 규모	5명 이하	150	50.0
	6-20명	90	30.0
	21명 이상	60	20.0
산업 분야	제조업	60	20.0
	서비스업	120	40.0
	IT/기술	90	30.0
	기타	30	10.0

4.2. 요인분석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beta=0.45, p<0.01$), 이는 자존감이 창업기업가의 자신감과 결단력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반면, 우울감은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38, p<0.01$),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기업가의 의욕이 저하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성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은 창업 성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22, p<0.05$). 자존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을 때는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beta=0.50, p<0.01$).

자존감을 증진하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지원이 창업기업가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임을 보여주며, 특히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지원이 성과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요인분석

요인	변수	계수(β)	효과	결과
자존감	Self-Esteem (SE)	0.45*	긍정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 자존감은 자신감과 결단력을 강화함.
우울감	Depression (DP)	-0.38*	부정적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저하됨. 우울감은 의욕 저하와 불안감을 초래.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	Interaction (SE×DP)	-0.22*	복합적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킴. 자존감이 낮을 때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커짐.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 창업 성과	Integrated Psychological Support (IPS)	0.50*	긍정적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p < 0.01

4.3. 구조방정식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다수의 변수 간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Self-Esteem, SE)과 우울감(Depression, DP),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ntegrated Psychological Support, IPS)이 창업 성과(Entrepreneurial Performance, E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 두 요인이 상호작용할 때 창업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매개효과, 그리고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이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내에서 각 변수 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은 회귀 계수로 도출되었으며, 관계 수식은 <표 3>과 같다.

<표 3> 구조방정식 관계 수식

변수	관계 수식
자존감(SE)의 영향	$EP = \beta_1 \times SE + \epsilon_1$ $\beta_1=0.45, p<0.01$
우울감(DP)의 영향	$EP = \beta_2 \times DP + \epsilon_2$ $\beta_2=-0.38, p<0.01$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DP)의 영향	$EP = \beta_3 \times (SE \times DP) + \epsilon_3$ $\beta_3=-0.22, p<0.05$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영향	$EP = \beta_4 \times IPS + \epsilon_4$ $\beta_4=0.50, p<0.01$

독립변수: 자존감(SE), 우울감(DP)
 매개변수: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
 종속변수: 창업 성과(EP)
 상호작용 항: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 × DP)

또한, 창업기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는 자존감(SE), 우울감(DP),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DP),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이며 이 변수가 창업 성과(E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계수(β)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4>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존감(SE)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0.45, p<0.01).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강화되어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존감이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둘째, 우울감(DP)은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0.38, p<0.01).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인해 의욕이 저하되고, 이는 성과 저하로 이어졌다. 따라서 우울감이 창업가의 동기 부여와 정신적 안정성을 약화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나타났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DP)도 창업 성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β=-0.22, p<0.05). 자존감이 높을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자존감이 낮을 때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0.50, p<0.01). IPS는 자존감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자존감의 긍정적인 효과와 우울감의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창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창업가의 심리적 상태 관리와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표 4> 구조방정식 분석

변수	경로 계수(β)	표준 오차(SE)	Z 값	p 값	유의미성
자존감(SE) → 창업 성과(EP)	0.45	0.11	4.09	<0.01	유의미
우울감(DP) → 창업 성과(EP)	-0.38	0.10	-3.80	<0.01	유의미
SE × DP → 창업 성과(EP)	-0.22	0.09	-2.44	<0.05	유의미
IPS → 창업 성과(EP)	0.50	0.12	4.17	<0.01	유의미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가의 자존감(SE), 우울감(DP), 창업 성과(SP), 통합적 심리지원(IPS)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자존감과 창업 성과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상관계수=0.47, $p<0.01$). 이는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일수록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존감은 우울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상관계수=-0.55, $p<0.01$),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존감과 통합적 심리지원 간에도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상관계수=0.60, $p<0.01$), 이는 심리적 지원이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우울감은 창업 성과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상관계수=-0.42, $p<0.01$).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성과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우울감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우울감은 통합적 심리지원 과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0.50, $p<0.01$). 이는 심리적 지원이 우울감 감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창업 성과와 통합적 심리지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상관계수=0.58, $p<0.01$). 이는 통합적 심리지원이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통합적 심리지원은 자존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창업가의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향상되고, 우울감은 감소하는 반면,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는 저하되었다. 통합적 심리지원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개선하여 창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창업가의 심리적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변수	자존감 (SE)	우울감 (DP)	창업 성과 (SP)	통합적 심리지원 (IPS)
자존감 (SE)	1	-0.55**	0.47**	0.60**
우울감 (DP)	-0.55**	1	-0.42**	-0.50**
창업 성과 (SP)	0.47**	-0.42**	1	0.58**
통합적 심리지원 (IPS)	0.60**	-0.50**	0.58**	1

** $p < 0.01$

4.5. 통제변수가 있는 인과관계 분석

본 연구는 자존감, 우울감, 통합적 심리지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통제변수를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자존감(SE)은 창업 성과(SP)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5$, $p<0.01$). 이는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가 자신감을 유지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통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향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존감은 창업가의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 발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 우울감(DP)은 창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8$, $p<0.01$).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가의 동기부여가 감소하고, 결단력과 창의적 사고가 저하되며, 이는 창업 성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감은 창업가가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저하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SE×DP)은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22$, $p<0.05$).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창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창업가는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우울감으로부터 창업가를 보호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통합적 심리지원(IPS)은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50$, $p<0.01$). 이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창업 성과를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통제변수로 설정된 창업 경험과 창업자원은 모두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창업 경험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0.20$, $p<0.05$), 이는 경험이 많은 창업가가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더 뛰어나 창업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창업 자원은 창업 성과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0.30$, $p<0.01$), 이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한 창업가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나이는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10$, $p>0.05$), 이는 창업가의 나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교육 수준은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eta=0.15$, $p<0.05$),

이는 창업가의 높은 교육 수준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을 통해 창업가는 더 나은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는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 시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표 6> 통제변수가 있는 인과관계 분석

경로	경로 계수 (β)	표준오차 (SE)	z값	p값	결과
자존감 → 창업 성과	0.45	0.08	5.63	<i>p</i> <0.01	자존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
우울감 → 창업 성과	-0.38	0.07	-5.43	<i>p</i> <0.01	우울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저하됨.
자존감×우울감 → 창업 성과	-0.22	0.10	-2.20	<i>p</i> <0.05	자존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함. 자존감이 낮은 경우 우울감 효과 강화.
통합적 심리지원 → 창업 성과	0.50	0.09	5.56	<i>p</i> <0.01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창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
창업 경험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20	0.07	2.86	<i>p</i> <0.05	창업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창업 지원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30	0.08	3.75	<i>p</i> <0.01	창업 지원이 많을수록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됨.
연령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10	0.06	1.67	<i>p</i> >0.05	연령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교육 수준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15	0.07	2.14	<i>p</i> <0.0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4.6. 통제변수 포함 간접효과 Sobel 검증

본 연구는 자존감(SE)과 우울감(DP)이 창업 성과(SP)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Sobel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존감의 직접 효과는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beta=0.45$). 자

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향상되어 창업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있어서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임을 시사하며, 창업가가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우울감의 직접 효과는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8$).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성과의 감소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창업가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가 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의 간접효과는 자존감이 우울감을 매개로 창업 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0.10, z=-2.50, p<0.05$). Sobel 검증 결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경로의 유의미한 z 값을 나타내며, 자존감이 증가함으로써 우울감이 감소하고, 이는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넷째,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간접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매개 경로를 통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beta=0.20, z=3.33, p<0.05$), 우울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0.19, z=3.80, p<0.05$). 이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자존감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창업 성과에 중요한 간접적 기여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통제변수인 창업 경험과 창업자원도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 경험은 창업 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0.20$), 이는 경험이 많은 창업가가 다양한 상황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성공적인 창업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자원도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30$), 이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한 창업가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자존감과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자존감이 우울감을 매개로 창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이 경로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창업가의 심리적 건강 관리가 성과 극대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향후 창업지원 정책에서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표 7> 통제변수 포함 간접효과 Sobel 검증

경로	직접 효과 (β)	간접 효과 (β)	표준 오차 (SE)	Sobel z값	p값	결과
자존감 → 창업 성과	0.45	-	-	-	-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침.
우울감 → 창업 성과	-0.38	-	-	-	-	우울감이 창업 성과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자존감 → 우울감 → 창업 성과	-	-0.10	0.04	-2.50	<i>p</i> <0.05	자존감이 우울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침. 자존감 증가로 우울감 감소, 성과 향상.
자존감×우울감 → 창업 성과	-0.22	-	-	-	-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이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심리적 지원이
통합적 심리지원 → 자존감 → 창업 성과	-	0.20	0.06	3.33	<i>p</i> <0.01	자존감을 매개로 창업 성과에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침.
통합적 심리지원 → 우울감 → 창업 성과	-	0.19	0.05	3.80	<i>p</i> <0.01	심리적 지원이 우울감을 감소시켜 창업 성과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
창업 경험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20	-	-	-	-	창업 경험이 많을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침.
창업 지원 (통제변수) → 창업 성과	0.30	-	-	-	-	창업 지원이 많을수록 성과에 긍정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침.

V.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창업가의 자존감, 우울감, 그리고 심리적 회복력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는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존감 향상이 동기부여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성과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자존감과 우울감은 상호작용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가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창업가의 정신 건강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장기적인 정신 건강 안정과 대인관계 향상과 창업성파에도 효과적 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과 창업 성과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상관계수=0.47, *p*<0.01). 이는 자존감이 높은 창업가일수록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연구(Rosenberg, 1965; 이상직·박재춘, 2015; 김종관·박기

홍, 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우울감과 창업 성과 간에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상관계수=-0.42, *p*<0.01). 선행 연구(임은정, 2019; 손상규, 2020)과 일치한다. 이는 우울감이 높은 창업가는 성과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울감이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존감과 우울감의 상호작용은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2$, *p*<0.05). 자존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며, 자존감이 낮은 경우 우울감의 효과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이민선·채규만, 2012; 윤상문·백성익, 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결과가 도출되었다($\beta=0.50$, *p*<0.01). 자존감과 통합적 심리지원 간에도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상관계수=0.60, *p*<0.01). 이는 심리적 지원이 자존감 향상에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 연구(장유진·이병희, 2019; 안태욱·강태원, 2020)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가의 자존감 증진 및 우울감 완화를 통해 창업 성과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시사점

5.2.1. 이론적 시사점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성과에 대한 기존 이론들이 주로 재정적·기술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심리적 요인이 창업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존감과 우울감,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업가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창업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자존감이 창업가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이 자존감과 우울감의 독립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존감이 우울감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이는 창업가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자존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셋째,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이 창업가의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시 경제적·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기존의 창업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창업 성과에 있어 심리적 요인의 직접적인 기여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5.2.2. 실무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존감 강화와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실무적으로 창업지원 정책에서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무에 반영될 수 있다.

둘째, 창업 년수에 따라 심리적 상태와 지원 요구가 다르므로, 각 창업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단계(1~3년 차)에는 자존감 강화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중기 및 성숙기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심리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창업가들의 심리적 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 1~2회의 심리검사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가들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창업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와 창업 지원 기관은 이러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제공하거나, 심리적 지원 바우처를 통해 창업가들이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심리지원 프로그램(IPS)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심리적 지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성과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자존감, 우울감, 심리적 회복력 등 심리적 요인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지만, 스트레스 관리, 창업 동기 여부 등 다른 중요한 심리적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한정된 표본에 의존하였으며, 표본의 다양성을 확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창업가의 지역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심리적 요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배경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존감과 우울감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국가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국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

- 권석만(2000). *이상심리학 시리즈 2: 침체와 절망의 늪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김대수·이종환(2018). 자기 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창업교육연구*, 32(3), 169-193.
- 김의정·표시연(2024). 문학 치유적 글쓰기 수업에서 살펴본 대학생의 쓰기 효능감,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6), 417-432.
- 김종관·박기홍(2018). 기업 내 기업가정신과 감성지능, 지원적 리더십, 적응성과의 관계.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289-301.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창봉·이승현(2017). 창업지원제도가 1인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41-54.
- 김혜화·변상해(2018).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5), 17-28.
- 박경희(2020).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박덕근·최보름·이미정(2021). 청년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과 과업적 요인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18(2), 118-137.
- 손상규(2020). *대기업 직장인의 기업가정신과 스트레스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신용식·김재홍·이일한(2021). 중소 제조업 종사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4), 135-151.
- 안태욱·강태원(2020).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애로 요인

- 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2), 67-80.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 경영연구*, 17(2), 89-110.
- 윤상문·백성익(2017). 라인댄스 참여 주부들의 자기관리가 스포츠 가치인식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 15(1), 155-163.
- 은행권청년창업재단(2022). *2022년도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 이민선·채규만(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상직·박재춘(2015). 예비 청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 감성지능,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관계. *한국부패학회보*, 20(4), 95-116.
- 이예슬·전혜정·박하영·주수산나(2020). 노년기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자녀 관계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노인학회지*, 40(6), 1287-1305.
- 이혜영·김진수(2018). 초기 및 후기 기술창업기업 창업가의 역량 모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99-116.
- 임은정·오상도·조인숙(2020).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이 여성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여성경제연구*, 17(3), 51-75.
- 임은정(2019).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동기화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수덕(2005).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 사례연구. *경영연구*, 20(2), 21-46.
- 장유진·이병희(2019). 창업의도 요인에 관한 연구-기업가정신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8), 993-1012.
- 장현철·김중성(2021).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43-55.
- 정영호(2013).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기업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정 조절 능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전겸구·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65-76.
- 전병재(1974). 자아존중감 도구측정, *연세논총*, 11, 109-129
- 전혜진(2014).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심리적특성과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 창업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혜선·류경민(2023). 카페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자아존중감, 감정조절능력, 자기관리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9(6), 51-63
- 홍효석·설병문(2013).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2), 141-151.
- Aspelund, A., Berg-Utby, T., & Skjevdal, R.(2005). Initial resources' influence on new venture survival: a longitudinal study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Technovation*, 25(11), 1337-1347.
- Beck, A. T.(1979).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London: Penguin.
- Cacciotti, G., & Hayton, J. C.(2015). Fear and entrepreneurship: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7(2), 165-190.
- Chandler, G. N., & Hanks, S. H.(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 Chen, H., & Tao, Y.(2021). Efficacy of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performance of new ventures i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in the greater bay area. *Frontiers in Psychology*, 12, 705095.
- Eaton, W. W., Muntaner, C., Smith, C., Tien, A., Ybarra, M., & Maruish, M. E.(2004).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eview and revision. *The use of psychological testing for treatment planning and outcomes assessment*, 363-377.
- Harandi, T. F., Taghinasab, M. M., & Nayeri, T. D.(2017). The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with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Electronic physician*, 9(9), 5212.
- Herron, L., & Robinson Jr, R. B. (1993).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81-294.
- Kariv, D.(2013). *Female entrepreneurship and the new venture creation: An international overview*. London: Routledge.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Maslow, A. H.(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Muenster, M., & Hokemeyer, P.(2019). *There is a mental health crisis in entrepreneurship*. Here's how to tackle it. In World Economic Forum. 2024.10.05.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3/how-to-tackle-the-mental-health-crisis-in-entrepreneurship/>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itt, D. P., & Allik, J.(2005).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53 nations: exploring the universal and culture-specific fea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623.
- Schunk, D. H., & Zimmerman, B. J.(1997). Social origins of self-regulatory competence. *Educational psychologist*, 32(4), 195-208.
- Shippmann, J. S., Ash, R. A., Batjtsta, M., Carr, L., Eyde, L. D., Hesketh, B., Kehoe, J., Pearlman, K., Prien, E. P., Sanchez, J. I.(2000). The practice of competency modeling. *Personnel Psychology*, 53(3), 703-740.
- Stephan, U.(2018). Entrepreneur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32(3), 290-322.
- Tisu, L., Virgã, D., & Taris, T.(2023). Entrepreneurial well-being and performance: antecedents and mediators. *Frontiers in Psychology*, 14, 1112397.
- Turner, R. J., & Brown, R. L.(2010).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Social contexts, theories, and systems*, 2, 200-212.
- Ulrich, D., & Ulrich, W.(2011). The why of work: How great leaders build abundant organizations that win. *Sage*

Journals, 4(3), 85-85

Weissman, M. M., Sholomskas, D., Pottenger, M., Prusoff, B. A., & Locke, B. Z.(1977). Assessing depressive symptoms in five psychiatric populations: a valid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6(3), 203-214.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of Start-Up Entrepreneurs on Start-Up Performance

Lee, Jeong-won*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self-esteem,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while also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IPS). Self-esteem was identified as a key psychological factor that allows entrepreneurs to positively perceive their abilities and maintain confidence in challenging situations. It was confirmed that entrepreneurs with higher self-esteem are more likely to achieve better performance outcomes. On the other hand, depression was shown to negatively affect creativity and motivation, thereby hindering performance. Notably, the interac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entrepreneurial performance; higher self-esteem wa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the negative effects of depression. Finally, the IPS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entrepreneurs by enhancing self-esteem and reducing depression, ultimately leading to improved performanc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support programs that address psychological factors in entrepreneur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eyWords: Entrepreneurial Performance, Self-Esteem, Depression, Psychological Factors, Integrated Psychological Support, Entrepreneurial Support, Psychological Resilience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Completion of Ph.D. in Popular Culture Scenario Course, ijeongwon@naver.com